언택트 연등회, 새 봉축 '희망' 봤다

참석단체들 호응 높고, SNS 긍정비중 높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국 불자 시 · 공간 극복 장점
연희 영상 개인확인 쉽게 가능
'연등회' 검색어도 56%로 선방
SNS 긍정메시지 73%대 기록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사상 최초로 언택트 방식으로 열린 불기 2565년 연등회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처음 시도되는 방식으로 인한 운영상 아쉬움과 함께 향후 온 · 오프라인 병행 효과에 대한 기대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5월 15일 온라인상에서 진행된 불기 2565년 연등회에는 60여 연등회 참여단체들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활용해 참여했다. 언택트 방식을 통해 연등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호평과 함께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행사를 병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율동 등을 담당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의 양선영 운영실장은 "전국 사찰에서 연희단 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율동 챌린지에 참여하고, 영상을 만든 것 자체가 감동적이었다"며 "서로 시공간을 넘어 소통하는 부분에 분명한 장점이 있는 만큼 해외 연희단 연결, 일반인 연희율동 참여 등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실무자 입장에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양 운영실장은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래도 리더들이 율동 분위기를 주도하고 단체가 주목받지만, 온라인에서는 카메라로 개인이 직접적으로 주목받으니 어색해 하는 부분은 있었다. 앞으로도 언택트 방식이 융합되 사용된다면 이런 방식에 대한 불자들의 친숙함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언택트 연등회에는 대학생 불자들의 참여도 활발했다. 조용석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위원장은 "보통 대불련 연희단은 학교별로 모여 활동을 하는데, 이번 연등회는 학교 자체가 집합금지를 하는 곳이 많아 중앙에서 언택트로 진행을 해도, 단위 대학에서 모이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참여한 많은 대학생 불자들이 소규모라도 모여 함께 연희단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하지 못한 아쉬움을 해소하는 계기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지도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언택트 연등회에 참여하다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됐다. 연희단 활동도 서로 공유하고 칭찬, 격려해가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5월 15일 온라인상에서 진행된 연등회에는 60여 단체들이 '줌' 프로그램을 활용해 참여했다.

연등회에 어린이 연희단 영상을 보낸 약사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윤성 스님은 "지방사찰과 달리 수도권 사찰들은 집합제한이 강해 자모들을 설득해 몇 팀으로 나누어 촬영을 했다. 영상 관람 또한 모여서 할 수 없다보니 법회 채팅창에서 링크를 공유해 유튜브로 시청했다"고 동참 과정을 밝혔다. 스님은 "예전 연등회의 경우 방송사 등에서 촬영은 하지만 연희율동에서 직접적으로 출연하진 않았다. 유튜브로 편집된 영상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나오니 아이들이 다른 연등회와 달리 더 신기해 했다"며 "다음날인 일요일, 언택트 어린이법회를 하며, 연등회 영상을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서로 소통해가며 참여를 이끄는 방법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현장에서의 반응과 함께 이번 언택트 연등회는 인터넷 검색 등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5월 20일 현재 연등회 유튜브 채널의 연등회 및 유네스코 등재기념식 스트리밍 영상은 1만 100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봉축점등식 스트리밍 영상 또한 9970회를 넘겼다.

구글 검색량을 분석하는 구글트렌드의 '연등회' 키워드 검색에 따르면 가장 검색량이 많았던 2019년 5월 연등회 키워드 검색량을 기준으로 2021년 5월 연등회 키워드 검색량은 56%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연등회가 중단된 2020년 5월 검색량은 2019년 5월에 비해 34%에 불과했다.

SNS상에서도 언택트 연등회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SNS 분석사이트 썸트렌드에 따르면 SNS상 '연등회'와 '연등축제' 키워드의 관련 연관어는 '희망' '자비' '평화' '행복' 등 긍정적 언어가 전체 반응 중 73%를 차지했다. '어렵다'와 같은 부정적 언어는 8%에 불과했다. '부처님오신날' 키워드 조회 건수도 5월 15일 183건에서 5월 16일 539건에 이어 5월 19일 1만 604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SNS 상에서 'yunasuh' 씨는 "코로나 펜더믹으로 2021 올해 서울시의 도시 연등행렬은 취소 축소 될 것으로 들었는데, 그래도 알음알음 연등회를 준비했군요" 등의 의견을 남겼다.

불교 기반한 비영리 상담전문단체 출범

5월 1일 다르마심리상담센터 창립총회

효록스님 등 상담전문가 포진
불교계 전문상담사 양성 추진
사회적 사건시 공익적 상담도

불교적 가르침에 기반해 활동하고 있는 전문상담가들을 주축으로 한 비영리 상담 전문 단체가 처음으로 출범한다. 전문상담가 양성 및 상담기법 교육은 물론,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위한 심리상담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불교 상담단체로는 첫 비영리민간단체로 출범한 '다르마심리상담센터'는 5월 1일 비대면회의 방식으로 창립총회를 열어 단체와 운영에 관한 회칙을 확정한데 이어, 5월 17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완료하고 공식 출범했다.

다르마심리상담센터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수퍼바이저인 효록 스님을 중심으로 박성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한국상담심리학회 수퍼바이저), 하현주 서울대 박사(한국상담심리학회 수퍼바이저) 등 전문가들이 불교계에도 비영리로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공익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모으면서 추진됐다.

효록 스님은 "2014년 세월호 사태 당시 팽목항 현장에 개인적으로 찾은 스님들 사이에서 가톨릭, 원불교 등의 활동에 비해 불교의 활동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실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불교 상담부스가 부재한 것을 본 뒤 불교의 대사회적 활동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단체의 목적도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상담실 운영과 상담자 인재 양성, 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 인류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로 정했다.

다르마심리상담센터의 핵심은 불교에 기반한 전문가그룹이 공익 차원의 최소 비용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계층, 사회적인 사고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직간접적인 관계자 및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활동도 계획 중이다.

효록 스님은 "불교 상담은 현재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다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르마심리상담센터는 불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단체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교에 기반한 상담 전문가 양성 및 일반인 심리상담, 그룹상담 프로그램 등은 물론, 공익목적의 상담을 지속할 수 있는 후원 모금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첫 공식 프로그램은 5월 17일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 세우기'다. 스님들이 현재를 통해 스스로의 과거를 되짚는 과정에서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끄는 심리프로그램으로, 현재 스님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02)808-8718, 농협 301-0292-8275-71(다르마심리상담센터) 송지희 기자

조계종, 타종단 스님 대상 귀종승 접수

6월 30일까지 은사 재적본사 통해
한국불교종단협 소속 종단만 가능

조계종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귀종(歸宗)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최근 '귀종승 입적에 관한 령'에 의거, 타종단 승적을 취득한 후 조계종으로 귀종해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스님을 대상으로 한 귀종승 입적 신청 공고를 게재했다. 귀종 신청은 은사의 재적본사 혹은 은사가 거주하는 사찰의 교구본사를 통해 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총무원 총무부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에 한하며, 은사의 재적본사가 직할교구일 경우 은사 추천으로 신청가능하다.

자격 조건은 고졸 또는 동등 학력 이상을 기본으로, 당해 귀종승 입적신청 기준 연령 만 50세 이하로 타종단 수행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당해 귀종승 입적신청 기준 연령 만 60세 이하로 타종단 수행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타종단 수행경력은 귀종 신청 당시에 소속된 타종단에서의 수행경력으로, 기간 중 전종 또는 탈종을 한 경우 종단 간 수행 경력을 합산할 수 없다. 또 타종단 승적을 취적하기 전 이혼자로 가족부양의 의무가 없어야 하며 귀종 신청은 1회(반려 · 탈락 포함)에 한한다.

조계종 총무부에 접수된 귀종 신청서는 취합해 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계단위원회는 심의를 통과한 귀종 신청자에 한해 하반기 수계교육에 귀종 신청자를 입교토록 한 데 이어, 교육필증과 5급 승가고시 합격증을 수여받은 자에게 사미 · 사미니계를 수계(授戒)한다. 02)2011-1703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탄자니아에 전해진 자비 선물

아름다운동행, 5월 17일 지원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이 5월 17일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며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아름다운동행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백만원력결집불사 나눔 사업 일환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동들을 위한 코로나19 방지 천마스크와 빵, 삶은 달걀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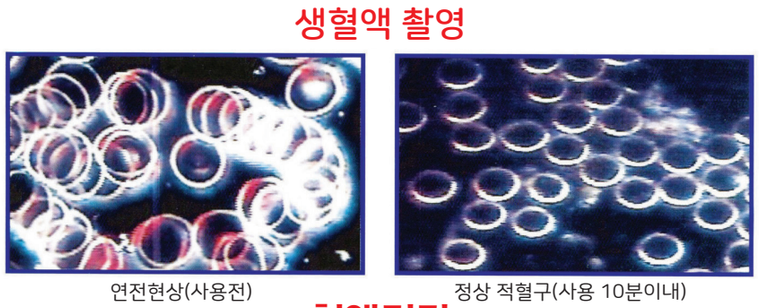
아름다운동행의 자비물품은 탄자니아 지부서 진행 중인 아동 영양급식 'HAPPY CORN' 사업 대상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인근 초등학교 9곳에 전달됐다. 총 4500여 학생들은 각각 재활용이 가능한 천마스크 2개와 옥수수죽, 빵, 삶은 달걀 등을 전달받았다.

부유니 초등학교 교사 조아치마(Joachima A. Kayagila, 38) 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아이들에게 천 마스크를 줘 고맙게 생각한다"며 "매일 옥수수죽을 지원해주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특별식을 더해줘 학생들이 의미 있게 느낄 것 같다"고 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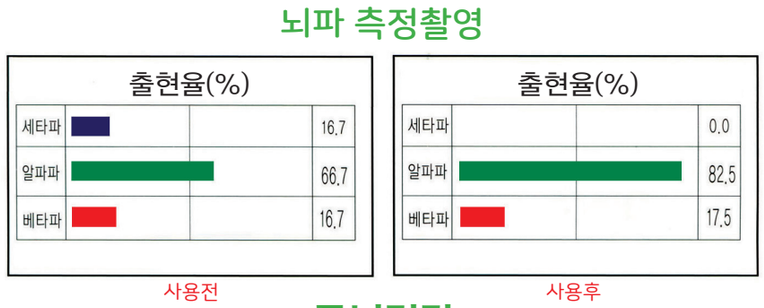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혈액건강

뇌파 측정촬영



두뇌건강

검버섯 제거 현상



세포건강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혈관이 깨끗해진다면, 차가웠던 손 발이 따뜻해지며, 면역력 증강과 각종 혈관 질환 예방 및 각종 두통이 사라지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비누거품을 코 속에 넣고 마사지 해주면 감기예방하고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 및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황금색: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핑크색:120g 3개 9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5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